

'92년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본 학회의 '92년도 정기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가 10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보고되었으며 이어서 내년도 고분자학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으로 회장 김은영박사, 수석부회장 한만정교수, 부회장 한정련교수, 유영학사장, 김완영교수, 전무이사 김영하박사, 총무이사 임승순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이번 추계 연구논문 발표회에서는 국내외 약 53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3명의 초청특별강연, 4명의 산학협동강연, 19명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일반연구논문은 6개 발표회장과 1개의 포스터 발표 회장에 나누어 이틀간에 걸쳐서 발표되었다.

총회에 앞서 발표된 세편의 초청특별강연에서는 첫번째 강연은 미국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 계시는 정찬일교수께서 맡아 주셨다. 고분자가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Single-Screw Design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유변학적 용융거동차원에서의 해석에 의거하여 강연해 주셨다. 이어서 일본 교토대학 고분자화학과의 Hashimoto교수의 Self-Assembly of Block Copolymer/Homopolymer Mixtures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초청강연은 대한민국 학술원상 기초부문에서 올해 수상하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심정섭교수의 고성능에폭시수지의 경화반응과 물성양상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에폭시수지의 개론 및 경화반응, 수지변성기술에 의한 물성향상에 대한 전반적인 변성기술에 의한 물성향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주어진 45분간의 강연시간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다.

오후 2시부터는 여섯개의 발표장에서 학술논문 발표가 일제히 시작되었는데 연구논문 발표분야를 보면 고분자합성(34편), 고성능고분자(12편), 고분자공업(12편), 기능성고분자(33편), 고체물성(10편), 구조 및 중합반응공학(10편), 고분자가공(10편)등 이었다.

이번 학회에서도 최근 증가하는 논문수를 소화하면서 직접적인 토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스터발표 회장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금요일 3시 28편, 5시 27편, 토요일 10시 22편을 게시하여 1시간 30분동안 발표자들이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소가 협소한 감은 있었으나, 포스터회장은 시종 성황을 이루었으며, 발표자와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널리 포스터 발표가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은 지배적 의견이었다.



이번 추계논문발표회에서는 논문발표회장의 참가 및 질문토의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진급회원들을 논문발표좌장으로 위촉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좌장들로 다소 진행상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무리없는 진행이었다는 여론이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학술관련토론으로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 고분자학회장이신 홍성일교수의 학회활동에 관련된 올해의 행사전반에 걸친 말씀과 차기회장이신 김은영박사의 내년도 학회계획 및 포부는 고분자학회의 앞날을 더욱 더 밝게 해주는 vision을 제시하는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도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고분자 심포지움이 계획되었으며 4명의 연사가 산업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발표하여 고분자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추계 고분자 학회가 열린 전북대학교는 교통이 다소 불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짜여진 캠퍼스와 좋은 주변 여건으로 인해 학회 분위기가 매우 상쾌한 기분을 주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지원해 주신 전북대학교와 원만한 진행을 책임지고 준비해 주신 전북대 공업화학과의 김원영교수를 비롯한 관련학과 교수들과 행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조직간사 장정식)

